



DOPLUDO COLLECTIVE | W VERBIER | GOOGLE,  
KUALA LUMPUR | BICOM COMMUNICATIONS |  
ZENITH BARTER OFFICE | bob COORDINATION  
STOCKHOLM FURNITURE & LIGHT FAIR 2014

bob COLLECTION :  
**RETAIL SHOP**



116

International Magazine of Space Design | bob |



# EXHIBITION JULIAN OPIE

Kukje Gallery has held the solo exhibition of London based artist Julian Opie from 13 February to 23 March 2014. As this is Opie's second solo exhibition at Kukje Gallery since 2009, the exhibition includes his various works including large-scaled sculptures as well as vinyl paintings and LED panels. As the major artist of postmodernism covering a wide range of sculpture and painting, Julian Opie started getting international attention as he has become the artist who builds unique objects by reinterpreting ordinary objects commonly found in urban life. He has shown simple, highly sensitive and personal style through his well known portraits and landscapes since then. For this exhibition, Kukje Gallery introduces multimedia works using the wall and floor of the gallery, and presents dynamic exhibition filled with the energy and movement of figures that the artist focuses on. The exhibition presents the artist's new series of painting dealt with pedestrians of Seoul, and this series where the street crowds is represented into several groups dramatically reproduces the appearance of shoppers and busy passerby emphasized in various outfits. In addition, two large resin models figuring human head as well as LED animated series presenting pedestrians in London. This figure like a statue in the Neolithic Age adds vitality by coloring in the same color and style as vinyl painting after producing with concentrated resin. His creative world which includes advertising and language of public signage used in the world's commercial field can be seen in this exhibition.

국제갤러리가 2014년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영국 런던 출신의 작가 줄리안 오피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09년 이후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오피의 두 번째 개인전으로, 비닐 페인팅과 LED 패널뿐 아니라 대형 조각을 포함하는 다양한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조각과 회화의 영역을 폭넓게 아우르는 줄리안 오피는 후기 모더니즘의 주요 작가로서 도시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오브제를 재해석해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 내는 조각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가장 잘 알려진 그의 작품인 초상화와 풍경화를 통해 간결 하면서도 섬세하고, 자신만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선보여왔다. 국제갤러리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갤러리 벽면과 바닥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작품을 소개하며, 작가가 중요시하는 인물들의 에너지와 움직임으로 채워진 역동적인 전시를 마련했다. 전시는 서울의 보행자를 다룬 작가의 새로운 회화 연작을 중심으로 꾸며졌는데, 거리의 군중들이 몇몇 그룹으로 표현된 이 연작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차림새로 그려진 쇼핑객과 바쁜 행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됐다. 이와 함께 런던 보행자들의 모습을 담은 LED 애니메이션 회화 연작과 사람의 머리를 형상화한 두 개의 거대한 레진 모형도 전시됐다. 일종의 신석기 시대 조각상과도 같은 이 인물 조각은 농축된 레진으로 제작된 뒤, 비닐 페인팅에서와 동일한 색채 및 스타일로 채색되어 작품에 생동감을 더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재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업적 분야에서 사용되는 광고 및 공공 사인물의 언어를 포함하는 그의 창작 세계를 엿볼 수 있다.

www.kukjegallery.com

